

광양시, '미소청년' 자기 계발과 취·창업 지원

청년 활동 공간 조성·맞춤 상담 역량 강화·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전라남도 광양시가 청년들의 자기 계발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활동 공간 '미소청년'을 조성·운영하며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 27세부터 34세까지 취업 적령기 청년 유입이 전체 증가 인구의 64%에 달했다는 평가다.

청년정책을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은 광양시는 청년 주도형 교류 활성화와 맞춤형 정책 발굴 등 청년 수요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개소한 '미소청년'은 향후

청년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해 청년 유입과 인구 증가 흐름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양중앙도서관은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을 위한 청년층의 도서관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년 활동 공간 '미소청년'을 본관 3층에 조성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환 청년'이라는 의미를 담은 '미소청년'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한 창의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으로, 커피 드립, 베이킹, 재봉틀 공예 등 다양한 실습이 가능한 장비와 집기를 갖췄다.

신뢰도 높은 취업 정보 자료를 비치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 간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운영

되고 있다. 광양중앙도서관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청년 특화 프로그램 중 '청년 진로 탐색' 과정은 참가자 각자의 가치관과 적성을 파악해 진로 설계에 필요한 통찰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는 '쿠킹 클래스', 혼자 책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함께읽기, 청년을 위한 고전낭독' 등을 운영하며 성취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했다.

광양중앙도서관은 청년들의 창작 활동을 넘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상반기에는 뮤지션 김반장을 초청해 '청춘; 나답게 살아보자'를 주제로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 '김반장이 청년에게 go 함'을 개최, 청년들과 고민을 나누고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반기에도 청년 작가 북콘서트와 청년 멘토 특강 등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복덕 광양시 교육보육국장은 "시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발맞춰 도서관도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며 "학과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군 '보행자 안전' 시설 확충 안전조명등 3개·소형경광등 13개소

전라남도 장흥군이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3개소와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소형경광등 13개소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은 야간에 횡단보도에 조명을 비추 운전자의 시인성 개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안전시설 물이며 소형경광등은 불빛을 발산하는 LED 경광등으로서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 및 경사구간 등 주요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력 환기를 돕는다.

군은 장흥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남진 시내마 앞 횡단보도와 군민회관 오거리 회전교차로 내 횡단보도에 안전조명등, 용산면 관지리 등 주요 사고 위험 구간 13개소를 선정해 소형 경광등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장흥읍 주요 도로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접수 3년 만기 시 1080만원·이자 수령

전라남도 고흥군이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20만 원씩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50%인 10만원을 분기별로(30만원) 군에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총 108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 1월1일 이후~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지난 1일 기준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기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9월5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집수리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구례군, 실전 시공 등 방수 교육

전라남도 구례군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오라!구례 집수리 아카데미 4기 방수교'의 수강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구례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무 중심의 방수 기술을 익히고 국가자격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8월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10회, 구례 5일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에서 진행된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실기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수전문가 이학노 원장이 전담 강사로 참여한다. 수강생에게는 전문 장비와 자재, 시험형 실습 환경이 전폭적으로 지원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신청은 구례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uryeurban>)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61-783-7785)로 문의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

광양시 '세계 인구의 날' 기념행사 오늘 토크콘서트·25일 갈라뮤지컬

전라남도 광양시가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17일 시청 시민홀에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실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청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유공자 및 솜뿔 공모전 수상자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인구 관련 퍼포먼스와 단체 기념촬영, 인구정책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후에는 다동이 아빠이자 인기 개그맨인 정성호가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쾌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에는 가족과 출산, 육아의 가치를 담은 갈라뮤지컬 '비커밍 맘'이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12일 순천시 철도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순천철도마을축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제8회 순천철도마을축제·어린이 동요제 성료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은 지난 12일 철도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순천철도마을축제 및 제6회 순천철도어린이 동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축제장에는 무더운 여름날에 맞춰 대형 물놀이 에어바운스가 설치돼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곳곳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기

축제의 활기를 더했다. 오후에는 '제6회 순천철도어린이 동요제'가 열려 관내 어린이 참가자들이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동요 무대를 꾸몄다.

시민주 조곡동장은 "올해 축제는 물놀이부터 체험, 공연까지 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순천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 벌교종합스포츠시설 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협의 완료...2027년 개장

전라남도 보성군이 최근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협의 최종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벌교읍 장양리 일원에 들어서는 벌교종합스포츠시설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3만2226㎡ 규모의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축구장 2면(천연잔디 1, 인조잔디 1), 풋살장 2면, 주차장 등이 새롭게 조성되면 기존의 축구장 3면을 포함해 총 5면의

축구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부지에는 전지훈련센터도 조성돼 있어 체계적인 유소년 훈련 환경을 제공, 전국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부지 확보 지연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상반기 부지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같은 해 6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대상 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전남도 농정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으며 총 4차례의 보완 절차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최종

해제를 이끌었다.

보성군은 군의회 군관리계획 시설 변경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사를 발주하고, 2027년 상반기에는 주민과 전국 축구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 사업은 보성군이 전남권은 물론 전국적인 스포츠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규모의 유소년, 성인 축구대회 유치를 통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상권과 숙박업, 음식점 등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inilbo (전일보). Includes Kakao Talk and E-Mail details.